

'일터'의 새풍속도

주부취업 크게 늘다

‘직업훈련생 모집, 여성 및 고령자 환영’

(주)한양이 23일 한 신문에 낸 사원모집광고는 변화하고 있는 우리 고용시장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월말 전까지만 해도 ‘병역필’ 등의 자격요건을 명시해 여성취업을 근원적으로 봉쇄하고 있던 건설업계에서까지 여성에게 문호를 열고 있는 것이다.

이 회사가 여성들을 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현재 2백77명의 여성이 4개월의 훈련과정을 수료했으며, 그 가운데 1백25명은 굴착기(포클레인), 타워크레인 등을 움직이는 중장비기사이다. 수료자의 60%쯤은 가정주부이다.

평촌 한양 1차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굴착기기사로 일하고 있는 서영옥(35)씨는 지난해 3월에 입사해 3개월 만에 면허를 땀다. 서씨는 월 고정급여 50만원에 특근수당 등을 합쳐 평균 1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남편도 몇달 뒤 같은 회사에 타워크레인 기사로 취업했으나 월 소득은 서씨보다 10만원쯤 적다.

서씨는 “중기작업이 보기와는 달리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자에게 적합한 직종중의 하나”라면서 “다만 일을 배우는 시간은 남자보다 더 걸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설업뿐 아니라 조선·제철 등 여성금지업종으로 인식되던 중공업 생산 현장에도 ‘역적 여성’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조선업계에는 현대중공업 2백90명, 대우조선 70명이 현장에 투입돼 절단·용접·도장 등의 힘든 일을 거뜬히 해내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주부이며, 현대중공업에 근무하는 여성중 17명은 사내 기술사자격증을 땀다.

만도기계·한라공조 등 대형기계제작사들도 생산라인에 수십명씩의 여성을 투입하고 있다.

여성들을 생산현장에 채용한 기업들은 처음에는 인력난을 견디다 못해 시험적으로 여성인력에 눈을 돌렸으나, 뜻밖에 좋은 성과가 나타나자 현장근무자 여성비율을 크게 높여가고 있다.

생산설비의 자동화가 일반화되고 있는 데다 용접과 부품가공 등은 섬세한 여성의 손길이 오히려 불량률을 낮춰주고 있다는 것이다.

금성사와 삼성전자는 가전제품사후서비스요원으로 수십명씩의 여성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금성사의 경우 현재 3~6개월 과정의 연수를 마친 20여명이 현장에서 뛰고 있다.

금성사의 하건영 이사는 “집에 혼자 있는 주부들이 여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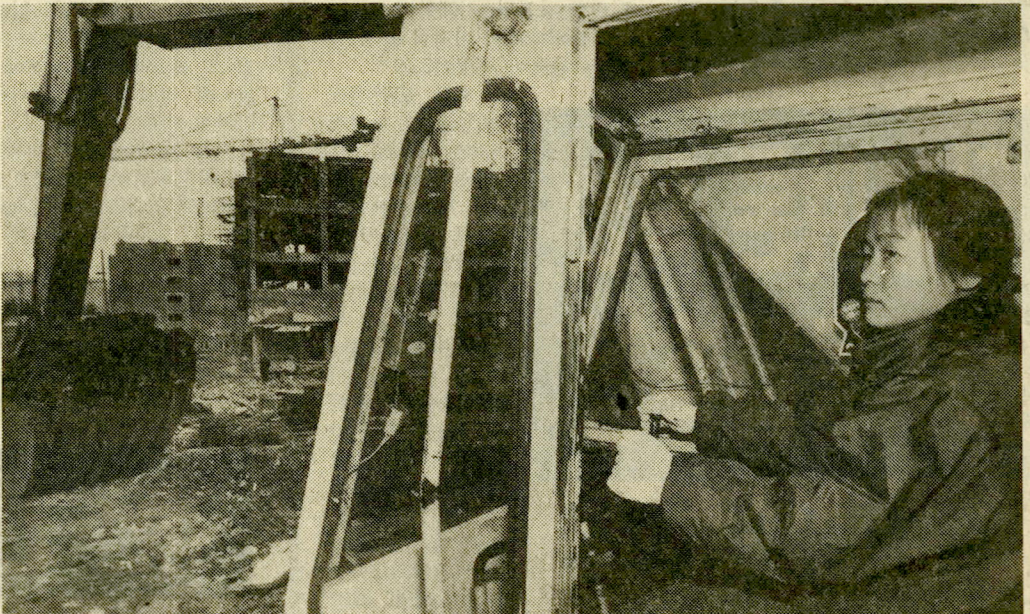
사의 방문을 편안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주부 입장에서 불만을 들어주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포항제철은 90년에 50명의 이공계 대졸여성을 채용했는데 산하계열사로 이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부서를 배치할 때 남녀구별을 하지않을 뿐 아니라 당연한 ‘대가’로 동등한 승진기회를 줘 평생직장으로 삼도록 한다는 게 회사의 인사방침이다. 이렇게 여성들의 진출이 다양해지면서 여성노동자 수가 1만명을 넘는 직종 가운데 여성이남성보다 많은 여성지배직종의 수도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90년말 현재 여성지배직종은 25종으로 80년의 13개 직종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시계정밀기계, 판매원, 청소원, 전자공 등이 새로 포함된 것이다.

각급 직업훈련원에서 배출한 여성기능공도 90년 한해동안 1만6천여명이나 돼 87년의 8천8백명에 비해 2배로 늘어났으며, 훈련직종도 배관·용접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여성개발원에 따르면 기혼여성의 제조업 유입은 특히 가속화돼 유입인구가 83년에 6천5백여명이던 것이 89년에는 1



24일 안양 평촌 한양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부사원인 서영옥(35)씨가 굴착기 작업을 하고 있다. <이정우 기자>

사원을 대리점에 배속시켜놓고 있다. 이들 중에는 해마다 수십억여치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사람도 많다.

보험모집은 주부들의 고유영역이 되다시피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보험모집인은 26만5

을 다시 채용해 시간제 근무자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1백여명, 서울신협은행의 경우 80여명을 채용해 1만5천~2만원의 일당을 지급한다. 백화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도 주부들을 모니터요원·판매원 등으로 채용하고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임금부담을 덜고 노조활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편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여성임금노동자 중 상용고용의 비중은 88년 78%에서 90년 75%로 떨어져 고용안정도가 나빠지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가정에 사장되고 있는 절대수의 여성인력을 직장으로 끌어낸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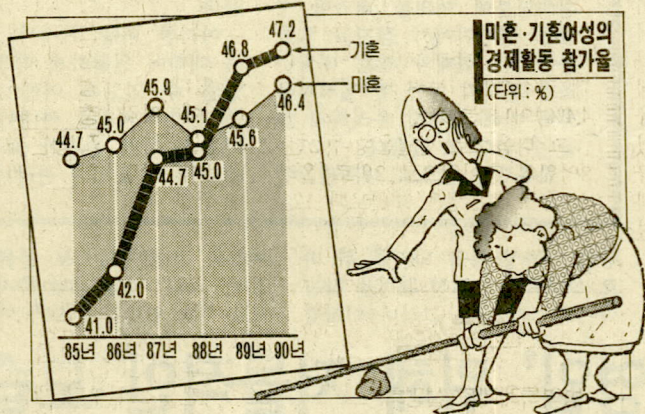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취업인구는 지난해 6월말 현재 7백88만명으로 총취업자의 41.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경제활동인구는 계속 늘어 지난해 9월말

기업 “인력난 타개책...의외로 성과 좋아”

건설·조선등 중공업현장까지 대거 진출

가전업체판매망·보험 주부들 거의 장악

‘시간제근무자’비중 늘어 고용안정엔 역행



만5백여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여성직종의 대종은 아직도 판매원, 보험모집인, 은행원등 서비스업종이 차지하고 있으며 주부들의 진출도 이곳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가전업체들의 판매망은 주부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성사는 7천여명, 대우는 5천여명의 주부

천6백여명이며 이 가운데 24만7천8백여명이 여성이다. 기혼여성은 전체 여성모집인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주부사원을 영업소장급만도 5백여명 채용했다.

은행에서는 오래 전부터 출산으로 인한 퇴직이 크게 줄어 기혼여성의 비율이 60%를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퇴직한 주부사원

롯데쇼핑에 1백40여명, 그랜드백화점에 70여명, 신세계백화점에 50여명이 일하고 있는데 시간제 근무자가 많다.

롯데 신생아코너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김영(42·성동구 광장아파트)씨는 대학을 나와 기업비서실에서 3년 근무하다가 결혼으로 퇴직한 뒤 다시 일거리를 찾아온 경우이다.

김씨는 “근무를 시작하고부터 씹숨이가 알뜰해지고, 시간관리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등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면서 “중학생인 딸 2명의 자립심을 키우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동료들도 경제적 어려움보다는 성취욕구 충족 등 비슷한 동기에서 일을 갖게 된 것 같다”며 “남편이 출근할 때 자가용을 함께 타고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제 근무의 확산이 여성인력의 불안전고용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현재 전체 여성의 48.9%에 이르고 있다. 이는 84년의 40.7%에 비해 8%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미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5년부터 6년 동안 44~46%대에 머물러 있으나, 기혼여성의 참가율은 85년의 41%에서 90년의 47.2%로 급격히 높아졌다. 농사일을 함께 하는 농촌주부를 포함하면 기혼여성 취업자수는 모두 5백54만명에 이르고 있다. 여성인력, 특히 주부취업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력 확대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와 육체노동의 정신노동화가 강력한 힘으로 여성인력을 가정으로부터 고용시장으로 끌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층의 생계비 압박과 중산층의 소비성향 증대에 따른 소득 추가 욕구, 가사노동 부담 경감, 직업의식변화 등은 주부들을 가정으로부터 자꾸만 밀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봉수 광정수 기자>